내년부터 중·고액 연봉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보험료·의료·교육비 등 소득공제 줄여
8월중 세제개편안 발표…조세저항 예상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 적용에 들어간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소득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혼 직장인 등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은 일부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으로 빼준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실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소득공제금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상위 10%의 소득공제는 1931만원, 10~20%는 1683만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905만원, 하위 10~20%는 995만원에 그쳤다.

세액공제 방식은 세수 증가 효과도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1년 근로소득 과세대상 993만5000명의 급여총계(비과세소득 포함)는 392조2000억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62조원에 불과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연간 230조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의 효과와 계층별 격차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기준의 타깃을 정할 계획이다.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 13만3000여명이 우선 대상이다. 세율이 24%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 54만9000명도 단계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 항목중 축소 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이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 역시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공제는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항목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사랑의 헌혈·농촌일손돕기…
광주세관 개청 33주년 기념행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는 지난 14일 개청 33주년을 맞아 개청기념식, 사랑의 헌혈, 보훈가족 위문,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957년 1월 목포세관 광주감시서로 출발해 1980년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으로 승격해 올해로 개청 33주년을 맞았다.

이날 광주세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력자 4명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직원 9명에대한 포상<사진>을 실시하고 사랑의 헌혈 운동과 6·25 참전 유공자 가정을 방문위로 격려했다. 또한 개청일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장성의 과수농가를 방문 잡초제거, 과일 솎기 등 바쁜 농촌일손 돕기 행사도 실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캐리어에어컨 올 단체교섭 조기타결

기본급 인상 등 합의…광주공장서 노사 조인식

공조전문기업인 캐리어에어컨은 16일 이달 초 광주공장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일치안에 대한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2013년 단체교섭을 조기에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은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투자노력을, 회사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직원들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노사간의 합의가 조기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이른 무더위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에어컨 주문량을 원활하게 생산·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캐리어에어컨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에 최종 합의한 이번 교섭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노조가 교섭 중에도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해 생산에 전념하는 등 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조기타결의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은 올해 출시한 국내 최고수준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자랑하는 신제품 '클라윈드 슈퍼 X-파워'(일명 립스틱 에어컨)와 '슈퍼 S+ 하이브리드' 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노사 맞잡은 라켓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광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노동조합 창립 제38주년을 기념하는 제26회 위원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은행 송기진 행장(오른쪽)과 이상채 노조위원장(왼쪽)이 대회를 기념하는 탁구 시타 행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현대삼호중공업 기술연수생 90명 모집

3개월 교육후 협력사 채용

현대삼호중공업이 16일 기술연수생 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60명, 전기분야 30명으로 오는 29일까지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홈페이지(tei.hshi.co.kr)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3개월간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기간 중 기숙사와 훈련비도 지급된다. 교육을 마친 연수생들은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에 전원 취업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직영인력 채용시 기술교육원 수료 후 사내협력사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은 지난 1995년 3월 개원 뒤 현재까지 3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1380여 명을 직영으로 채용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청 수출유망中企 48개사 선정

2년간 자금·마케팅 등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이 16일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48개사를 올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 48개사는 광주 22개사, 전남 21개사, 제주 5개사로, 신청기업 76개사에 대한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재무 및 혁신성 평가 등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등 25개 수출지원기관들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등 96개 항목에서 우대·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25개사이며 재선정된 업체는 23개사다. A사의 경우 지난 지정기간동안 지원사업 참여, 수출보험, 자금지원 등을 통해 2010년도 69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446만2000달러로 수출실적이 541%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15개 수출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제주포함) 지정기업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무역·수출금융 및 수출보증·보험 등에서 총 387건, 123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인증이 많지 않은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정부기관 인증으로서 해외에서 이미지 제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으며 오는 10월 하반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소기업 중장년 채용 크게 늘어

전경련 153개사 조사, 최근 3년 2배 가까이 증가

업무 만족도도 높아

40세 이상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갈수록 중장년 채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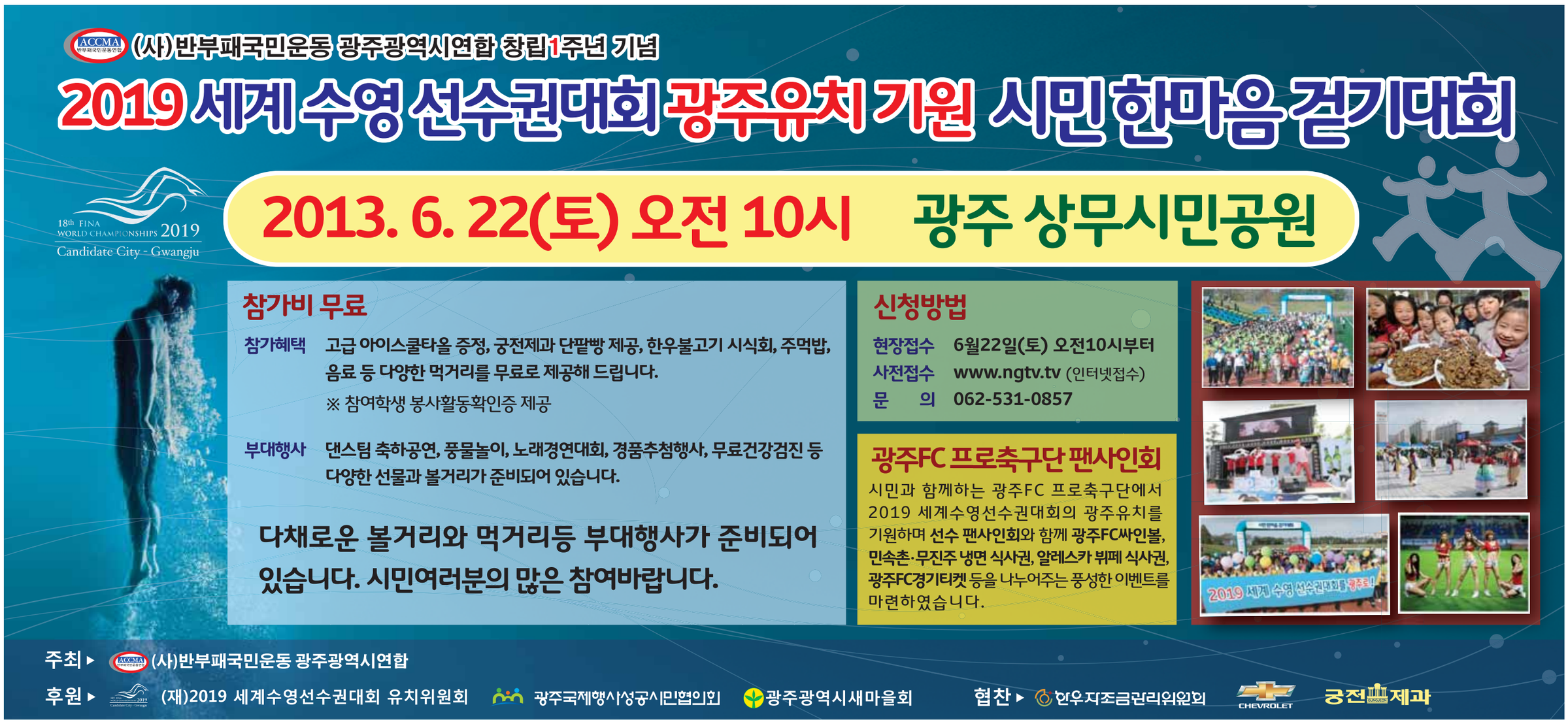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 17.3%만이 채용된 중장년의 업무성과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29.1%,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3.6%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의 직원 채용시 중장년 비율은 2011년에는 평균 22.4명중 4.3명(19.1%) 꼴이었으나 2012년에는 21.6명당 5.2명(23.9%)으로, 올해 들어서는 11.6명당 3.7명(31.5%)으로 늘었다.

이들 중소기업은 중장년들이 '재무지표 개선'(24.2%) 등 성과를 내는 분야보다 '내부프로세스 개선'(34.6%), '인적자원 관리개선'(32.6%)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분야에서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채용된 중장년들의 업무항목별 기여도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20.7%), '팀 구성 및 부하육성 등 조직문화 개선'(18.1%), '고객지향적 업무추진'(13.1%) 등 업무개선분야가 51.9%로 '매출신장·원가절감·생산성 향상 기여'(33.3%), '신제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7.6%) 등 성과창출분야의 40.9%보다 더 높았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5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7	14	20	34	37	4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118,679,205	11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35,360,550	58
3	5개 숫자 일치	751,801	2,728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3,421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8,508